

# 부처님의 그림자조차 신성한 대상으로 삼아

## 영지(상)

불교에서는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신 탑과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을 삼보 가운데 불보(佛寶)라 하여 존승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불보인 탑과 불상은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며, 심지어 그림자까지도 성보의 개념으로 확장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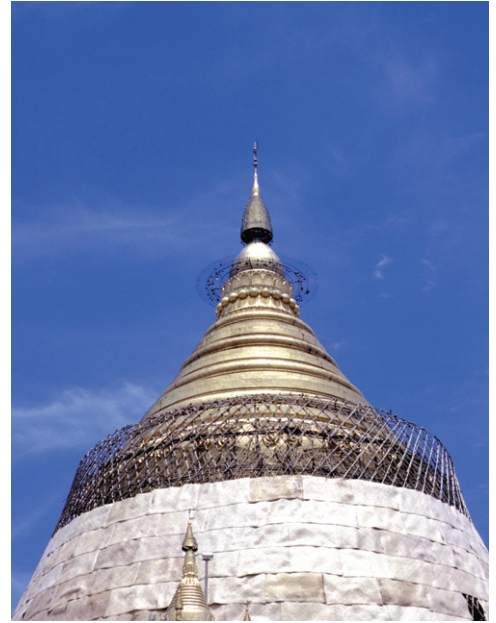
일본 우지 보도인의 영지



인도 바이살리 대림정사의 영지, 람꾼드



미얀마 바간의 쉐지곤파고다에서 볼 수 있는 영지



쉐지곤파고다의 상부형태

경한다. 이런 불영숭상(佛影崇尙)은 세인들에게 신이적 내용을 전달해 종교적 감동을 주려는 초기불교의 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영숭상의 예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는 물론 불교가 전파된 여러 지역 불교 사찰에서 발견된다.

대표적 사례로는 인도 바이살리에 있는 대림정사 터 네모난 못 람꾼드, 미얀마 바간에 있는 쉐지곤파고다 영지, 일본 교토의 킨카쿠지(금각사)와 우지의 보도인(평등원)에 조성된 영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람꾼드는 원승이가 부처님의 목욕을 위해서 관 욕지라고 하는데, 이 못에는 지금도 아소카 석주와 스투파가 비치고 있어 지난해 온전했을 당시의 잔상을 살필 수 있다. 쉐지곤파고다에 만든 영지는 특이한 형태로, 파고다 전면 바닥에 직경 10cm 가량의 구멍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채워 파고다 꼭대기 장식인 티(hti)가 비치고 록 했다. 왕이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고도 물에 비친 파고다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니 영지가 분명하다. 일본의 경우 영지의 기능을 가진 지팡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건물

### 불영숭상, 신이적 내용으로 감동 인도 바이살리 대림정사 터 대표적 비치는 대상따라 명칭 다양 신라 때부터 불영지 존재 확인

이 투영되는 경우가 많다. 킨카쿠지는 금각이, 보도인은 봉황당이 비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교가 도입되면서부터 부처님, 탑, 산 그림자가 비치는 투영못을 사찰에 조성했으니 이것이 바로 영지이다. 영지는 비치는 대상에 따라 불영지(佛影池), 탑영지(塔影池), 산영지(山影池)라고 부른다. 불영지와 탑영지는 근원불교지역 영지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산영지는 새로운 개념이다. 산영지는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산악승배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지가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찰에 조성됐는지 구체적 기록은 없다. 그러나 몇몇 사찰에 전해지는 사적기나 설화에 영지 관련 내용이 있어 실제 영지의 기능을 가진 지팡이 사찰에 조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울진 불영사(佛影寺)는 진덕왕 5년(651)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이 절의 창건연기는 고려 공민왕 19년(1370) 유백유(柳伯儒)가 지은 <전축산불영사기(天竺山佛影寺記)>에 실려 전해진다. <전축산불영사기>는 불영사에 대한 최초의 기문으로 1611년까지만 해도 원문이 절에



불영사 불영지에 비친 부처바위



불영사 부처바위

보관돼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소실됐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기문의 내용이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하권 강원도부에 전해진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상법사가 신라의 수도 경주(東京)에서 해안을 따라 단하동(丹霞洞) 해운봉(海雲峰)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니 마치 서역의 전축산과 같은 형세의 땅이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맑은 물

위에 부처님 다섯분의 형상이 비쳐 인연 깊은 곳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부근 금담봉 아래 폭포에 독룡이 살고 있어 법사가 독룡에게 설법하고 이 땅을 보시할 것을 청하였으나 용이 따르지 않자 법력으로 쫓아냈다. 용은 분하여 산을 뚫고 돌을 부수며 떠났는데 법사가 못을 매워 사찰을 창건했으니 남쪽에 청련전(靑蓮殿)을 짓고 무영탑(無影塔) 1좌를 세워 비보한 뒤 전축산 불영사라 하였다.(후략)

기문의 내용을 보면, 의상법사가 부처님 다섯분의 형상이 물 위에 비치는 것을 보고 절을 세웠다는 것이다.

부처님 그림자가 비친 못은 지금까지도 불영지로 불리고 있다. 이것을 보면, 이미 신라 때부터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치는 못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처님 그림자조차도 신성한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 무병장수의 꿈 마침내 현실화!!

# 명의(名醫), 부활하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전통천연물의학대백과-

2012년 최신간

권역(대한민국)연구회장/ 전3권/ 4x6배판/ 컬러판/ 양장본/ 3,600쪽/ 특이페이지/ 출간정보 보급가 32만원(정가 40만원)/ 신용카드 가능

**세상 수많은 질병에 대한 천혜의 해법, 모두 찾았다!**

어쩌면 밝고 지나쳤을 작고 소박한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놀랍도록 절묘한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해(圖解)화 했으며 전통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이 응축된 경탄할 치유력의 천연의술을 누구나 손쉽게 가용(家用)토록 함은 물론 한계를 넘는 또 다른 생명과학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한 우리 시대 가장 가치 있는 기념비적 위업의 하나!

**곁에 두는, 가장 지혜로운 주치의! 난치·불치의 벽을 허파해온 위대한 명의!!**

1권 약초 편  
그 자체로 혹은 응용으로, 수많은 치료법 및 신약의 획기적 질료가 되어온 1천 종류 약초의 사진 및 생태·특징·채취취급요령·효능·성미·독성·사용량·사용부위·범위·용법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 정리, 완성도 높은 본초학 도감으로 꾸며졌으며 각 권과 연계 활용케 함.

2권 처방 편  
각 질병의 원인·증상 설명과 함께 의료문명의 지향점에 이미 놀라우리만치 닿아있는 이상적 치료법으로 구명(究明)되며 마침내 인류의학의 희망으로 부활한 전통민간요법 질병치유사상 최고의 처방을 약재별로 제시(1천여 질병, 22,600여 처방), 태백 쓰도록 함으로써 만민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성을 아울러 피함.

3권 조제 편  
양생 및 병리 연구의 선각자들을 비롯 민가, 의가(醫家), 사찰 등에 비전되며 체험자에게 균형잡힌 건강장수를 실현시켜온 각종 주침(灸術)·탕전·약차·식이요법 등, 재료별 약리성에 근거한 정교한 생리활성 과학이었던 다양한 응용 치료법의 전수 2,600여종 조제법 및 비방 총망라.

**소중함 이에게 선물하세요. 천금으로도 살수 없는 가치를 받습니다**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국내 최초로 제대로 된 방대한 부초학 교본이자 한의사들이 투중약초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해방과 건강-  
▶“그의 익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일간스포츠-  
▶“역사상부담 전통약초요법대전으로서 민간이나 학계에서 그 활용가치가 지대할 것이다”-  
▶정일무(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방방곡곡을 도는 끝없는 체질 기록 비교분석 검증, 한 연구가의 60여년 공을두룩한 점, 정밀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해진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인류가 보았을 거대한 도출된 최선(先著)한 첨단적 의료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전통 천연물요법들이 한 불굴의 정수에 의해 정립됨으로써, 작금의 현대의학이 처한 난제(難題)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대체보건의학 연구 등에 기여도가 클 공력을 마련했다는 점에 널리 이의를 성과함”-조용해(충남대)-  
▶“고도의 면밀함을 요하는 점으로 지난했을 대역사(大役事), 이라도 이후 어떤 노력(努力)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김형석(약초연구가)-  
▶“쉽고 간단한 처방이면서도 강이로운 치유력을 보이는 천혜(天惠)의 의술, 그 소박한 그러나 위대한 생명활성 지혜를 완성 북학해냄에 따라 건강 장수하는 이상적인 삶의 보편화를 우리 당대로 앞당기는 일대 전기가 될 것”-전통의학사-  
▶“천하의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님을 전통민간요법은 증명하고 있다”-권혁세(저자)-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검토 후 송금하시면 됨. ('알라딘'에서도 판매 중)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